

지역 매 아 리

남부안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지원과 협력하여 최근 부안군 읍포면 갯벌생태공원 대회의실에서 이동상담실(법률 및 소비자상담)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남부안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권리의식 제고와 법률분야에 대한 각종 고민 해결, 영농·소비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부안농협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지원과 협력하여 현장상담 및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 날 최우식 조합장을 비롯한 남부안농협 임직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지원 전문강사는 참석한 지역 주민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접할 수 있는 법률관련 애로사항과 의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 활동을 펼쳤다.

남부안농협 최우식 조합장은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법률 생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는 농촌사랑 기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더불어 가족카페' 큰 호응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더불어 가족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상동 샘골보건지소 3층에 마련된 가족카페는 지난 12일 문을 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다른 치매 환자, 가족과 교류하는 소통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더불어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지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가족카페 내에는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사와 리플릿, 인지 재활 프로그램 교구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간단한 다과와 음료도 준비돼 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가 정식으로 개소되는 내년에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 가족카페가 들어서 치매가족교실(헤어업)과 자조 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정규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

정읍시, 지원사업 추진... 내달 23일까지 사업 희망자 모집 · 최대 1천만원 지원

정읍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3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를 받고 9월 중 사업대상지 2개소를 공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정읍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 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유형은 ▲남녀 공용 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 공용 화장실을 증설로 분리하는 리모델링 사업 ▲남녀분리가 된 화장실의 안전여건 개선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개방화

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과 수질보전팀(☎539-5732)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지난 20일 신림면사무소에서 행복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아따 집 앞까지 바로 데려다 중계 엄청 편하구만”

고창군 성내면·신림면 '행복 버스' 운행... 마을 안까지 승하차 가능

고창군 행복버스가 성내면·신림면에서 첫 시동을 걸었다.

고창군은 성내면과 신림면에 대중교통 오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창군 행복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버스는 버스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감축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는 고창군이 국비(1억5000만원)를 확보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날 시는 20일 행복버스 운행지역인 신림면사무소에서 군수, 군의원, 도의원 및 군의원, 이장협의회장 등 마을주민이

석구석까지 찾아갔다.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행복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선은 성내면의 경우 '성내면우체국-신성리-덕산리-부력리-조동리' 등 4개 노선으로 운행되며, 신림면은 마을과 농어촌버스 주요 운행 노선인 임리, 반룡, 왕림을 연계해 운영된다.

앞서 군은 20일 행복버스 운행지역인 신림면사무소에서 군수, 군의원, 도의원 및 군의원, 이장협의회장 등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관 진단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최초로 도입된 행복 버스는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에 유연성을 더해 마을 구석구석까지 운행이 가능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위한 방안이다"며 "특히, 교통소의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축구장 2100배 면적 경관지구 조성 박차

'청보리밭 축제'로 대한민국 경관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고창군이 관내 곳곳에 특색 넘치는 경관지구를 조성한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14개 읍면장과 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경관지구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고창군은 1읍면 1개소 경관지구를 조성해 특색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내년 초 선보일 경관지구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도려냈다. 전체 경관지구 목표는 1500ha(축구

장 2100배 크기)에 달한다. 조성이 완료되면 유채와 자운영 등 봄이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번도 첫 수도 고창에서 경관농업을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누구나 잘 사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로타리 클럽이 22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 '앞장'

부안군-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 4개 클럽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식 가져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서해, 해당화, 부안, 변산)로타리 클럽(지역대표 김만호)은 22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부안군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2천 이상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및 여행지보험 그리고 현지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국제로타리클럽 3670지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46세대 168명이 고향을 다녀왔고 2019년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3가정 45명이 선정되어 고향 방문의 기쁨

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얼마나라 또는 아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 사회 안정적 정착은 물론 행복한 가족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으로 선정된 배우자 김모씨는 "결혼하고 두 아이가 태어나는 4년 동안 한 번도 처갓집에 가지 못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갈 수 있게 되어 아내에게 최고의 멋진 선물을 안겨준 느낌이다"고 말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갈색거저리 사육농가 컨설팅 진행

고창군이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품화 단계에 발을 걸어볼았다. 고창군은 지난 21일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과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고창 관내에선 9농가가 갈색거저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선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을 위해 신기술 보급, 제품개발, 판매마케팅 등 경영기술 지원과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은 갈색거저리 연구동향을 알려주고, 관련기업의 갈색거저리 오일 활용 상품화, 온라인 홍보 및 오픈마켓 활용 등 6차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가공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갈색거저리는 딱정벌레목의 곤충으로 고소한 맛이 나서 '고소애'라고도 불린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갈색거저리 분말 장기 복용이 수혈 받은 암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식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용량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를 제작·설치했다.

또 갈색거저리 사육농가들이 한 장소에서 가공에 균일한 품질의 상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기술지원, 농업경영마케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